08 불확실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

• '행동 강화' 에 관한 실험에서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보다도 대가가 불확실하게 주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스키너 상자' 실험)

• 소셜미디어가 사람에게 주는 대가는 바로 도파민이다. 정신차려 보면 어느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있다. 메시지 수신을 알리는 표시가 뜨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러한 행위를 '도파민의 조화'라고 한다.
도파민의 효과는 사람에게 쾌락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빠지는 것일까? 다름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가 제시하는 해답이다.